

# 가정자원, 통제소재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Family Resource, Locus of Control, and Coping  
Styles on the Stress from the Family Resource Management  
in Housewives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張 允 玉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Yoon-Ok Ja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egree of the stress from the family resources management according to objective resources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variables which affect the stress from the family resources management in housewiv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65 married women who lived in apartment in Taegu. A questionnaire was used as survey method. The data was analyzed by means of factor analysis, t-test, ANOVA, Scheff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the stress from the family resources management according to the objective resource.

Second, the stress from the family resources management were more affected by perceived adequacy resource, the passive coping style, size of apartment than other variables.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발전하고 구조가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가정은 각각의 특유한 가치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변화하는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모로 보면 매우 작은 단위이지만 인간의 생의 본질과 근본적인 목표를 고려해 볼 때 그 어느 집단보다 중요한 집단인 가정내에서 가정자원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주부는 가정자원을 배분하고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가정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부가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이혼이나 죽음과 같은 생활사건에서 인지하는 스트레스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가정자원관리 그 자체가 성격상 단조롭고 반복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누적적인 만성적 스트레스로서 작용한다(이정우·황경혜·정진희, 1994). 이러한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는 주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전체의 행복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의 행복과 가정복지의 질적 향상이라는 가정자원관리의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주부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동일한 상황하에서도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개인의 성격이나 환경적 조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결과에 있어서는 상이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김경아, 1990; 최덕경, 1992; 이정우 등, 1994). 이것은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속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단일요인을 중심으로 단편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원인을 규명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모든 변인들을 동시에 조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먼저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본 다음 영향력이 큰 변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관한 더 명확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본 연구자의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이 소유한 실제적 가정자원인 객관적 가정자원에 따른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객관적 가정자원과 객관적 가정자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각정도인 가정자원적정도지각, 개인의 심리적 성격특성인 통제소재, 그리고 개인의 인지적·행동적 특성인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관해 알아보려 한다.

본 연구는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와 객관적 가정자원, 가정자원적정도지각, 통제소재,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법간의 관계를 제시하므로써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와 여러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하고 또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행동을 이해하고 예언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의도 가진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가정자원에 따라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인지적, 물적, 환경적)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객관적 가정자원, 가정자원적정도지각, 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방법(적극적, 소극적, 회피적)이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인적, 물적, 환경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용어의 정의

### 1) 가정자원

- ① 객관적 가정자원 : 가족의 요구 충족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받은 수단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물적자원을 의미한다.
- ② 가정자원적정도지각 : 주부가 가정내·외의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가정자원에 대해 적절하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지각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척도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통제소재 : 주부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의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성격특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소재 척도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① 내적통제성 : 주부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두며 그러한 상황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격특성을 말한다.
- ② 외적통제성 : 주부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의 원인을 타인이나 운, 우연, 운명과 같은 외부환경에 두며 그러한 상황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성격특성을 말한다.

3) 스트레스 대처방법 :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주부가 일관되게 사용하는 인지적이며 행동적인 반응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적극적, 소극적, 회피적 대처방법으로 분류하였으며 스트레스 대처방법 척도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

는 것을 의미한다.

- ① 적극적 대처방법 :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자신의 활동방향을 바꾸거나 조건을 변화시켜 상황을 더 좋게 변화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대처방법을 의미한다.
- ② 소극적 대처방법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대처방법을 의미한다.
- ③ 회피적 대처방법 : 문제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의 의미를 왜곡시킴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문제와 직접 부딪치는 것을 피하는 대처방법을 의미한다.

4)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 가족의 욕구충족과 만족이 극대화 되도록 가정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부가 느끼는 어려움이나 부담감, 긴장감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 물적, 환경적자원관리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각 영역에서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 1.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가정자원은 가정의 목표나 욕구를 달성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Deacon과 Firebaugh, 1988)이다. 그러나 가정자원의 양은 유한하기 때문에 가족의 무한한 욕구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항상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현대사회의 가정에서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가치와 요구, 목표는 더욱 다양화 되고 표준은 높아져 가족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가정 내부의 자원만으로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족은 가정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자신들이 획득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환경적자원 역시 주요한 관리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Nickell, Rice 그리고 Tucker, 1976).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듯 최근의 가정자원에 관한 연구들은 가정자원을 가정 내부의 자원과 외부의 자원(McCubbin 등, 1983)으로, 혹은 인적, 물적, 환경적자원(Rowland 등, 1985)으로, 그리고 시간, 금전, 주거, 지식·기술, 대인관계, 지역사회자원(서리나, 1994)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가족은 이처럼 다양하고 제한된 양의 가정자원으로 가족의 많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정자원을 가정자원관리체제로 투입하고 가정자원관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그 결과 가족은 만족감을 얻기도 하지만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주부는 가정내에서 가정생활을 주도하고 가족구성원 개 개인의 스트레스를 수렴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족구성원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창조해야 하므로 가정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부는 많은 긴장감과 부담감 즉,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최동숙, 1991).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는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변화가 더욱 빨라지게 될 현대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더욱 가속될 것이므로 주부는 가정 내부의 인적, 물적자원관리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외부의 근접환경이나 광역환경 자원관리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정자원의 다양한 측면에서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인적, 물적, 그리고 환경적 가정자원 관리시 주부가 지각하는 각각의 가정자원 관리영역에서의 스트레스를 알아보고자 한다.

## 2. 가정자원과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 1) 객관적 가정자원과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객관적 가정자원과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간의 관계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취업유무, 주거의 크기, 월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광주(1988), 김경아(1990), 차승희(1991)는 연령에 따라 주부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한다. 반면에 장병옥(1985), 박난희(1987), 전세경(1988), 최덕경(1992)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고 정민자(1984)는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는 연령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통제적인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교육수준과 관련해서 남유리(1989), 최덕경(1992)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다고 하고 이광주(1988), 이안나(1991)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김경아(1990), 강인(1990), 최덕경(1992)은 소득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다고 하는 반면 장병옥(1985), 전세경(1988)은 스트레스는 소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 또 박난희(1987), 이광주(1988), 차승희(1991)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주부의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고 장병옥(1985)은 자녀수에 따라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한편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스트레스를 비교한 남유리(1989)는 45세 연령층의 전업주부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하고 김경아(1990), 이정우 등(1994)은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는데 이는 취업주부가 취업에서 얻을 수 있는 정신건강의 잇점이 전통적인 주부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하는데서 오는 긴장과 과중한 역할부담으로 인해 상쇄되어 오히려 더 많은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최덕경(1992)은 남편의 직업이 서비스직, 사무직, 판매직인 주부들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으며 행정관리직인 주부의 스트레스가 가장 낮다고, 김재경과 문숙재(1992)는 남편의 직업이 비전문직인 경우 부부갈등이 높다고 보고한다.

가족의 주거형태와 관련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한옥이나 양옥에 거주하는 주부들에 비해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가 낮으며(최덕경, 1992) 주거

형태는 가정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주어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다(곽인숙, 1989). 주거의 크기가 주부의 가정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적으나 동일한 주거형태를 취하는 가정 내에서는 주거의 크기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비롯한 가정자원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 2) 가정자원적정도지각과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sup>1)</sup>

최연실(1996)은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가정자원이 많다고 지각하는 것을 실제로 가진 가정자원이 많은 경우와 실제상황과 상관없이 단순히 가정자원이 많다고 지각하는 두가지 경우로 나누고, 문제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법의 모색, 가정자원의 활용 및 탐색에는 실제 상황보다는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가족들의 상황에 대한 지각과 평가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자원을 적절한 것으로 지각하는 것은 주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현은민(1994)은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은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면서 이는 주부가 가정자원관리 활동을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자원이 부족하다고 지각할 때 생활에 있어 남편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한다.

장윤옥 등(1997)은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이 높을수록 주부의 인지, 물질,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낮다고 말하는데 이는 객관적인 가정자원의 수준 뿐 아니라 객관적 가정자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적정도지각 수준을 높임으로써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정자원의 양을 실제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은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연구와는 달리 Heck(1983)과 Clark-Nicolas 등(1991)은 경제적 자원에 대한 기본적 요구가 충족될 때는 더 높은 요구수준에

서 만족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도 더욱 높아지므로 개인의 경제적 자원적정도지각 수준의 증가는 만족감 증진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한다.

## 3. 통제소재와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개인의 성격특성은 개인의 인지적 특성의 하나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자원이다(Casta와 McCare, 1980; Hooyman와 Kiyak, 1988). 이러한 성격특성 중에서도 통제소재는 개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격특성(김현수, 1991)이며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설인자, 1989).

내적통제자들은 외적통제자들보다 순응적이고 사회적 영향에 대해 불평을 더 적게 하며 과업지향적이고 개인적 적응을 더 잘하고(Doherty, 1981) 생활을 더 잘 통제할 뿐만 아니라(Brown, Heltsley 그리고 Warren, 1982) 생활에 더 만족한다(Baker와 Kivett, 1976). 황상하(1995)는 내적통제자들이 문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며 정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적게 느낀다고 한다. 이것은 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높아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와는 달리 Matthews(1982)는 내적통제자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고 행동이 무력해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외적통제자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김애숙(1986)도 내적통제자는 실패를 경험한 후 외적통제자보다 더 많은 불안을 보인다고 한다.

한편 장윤옥 등(1997)은 외적통제성이 강한 주부

1)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가정학회지, 34권 6호(p.356-367)을 참고하기 바람

들이 내적통제성이 강한 주부들보다 인적, 물적자원 관리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통계소재가 주부의 스트레스 중에서도 가정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적지만 장윤옥 등(1997)의 연구결과와 내적통제성이 강한 주부일수록 가사노동수행 수준이 높다고 한 윤소영(1992)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내적통제성이 강한 주부들은 제한된 가정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려고 가정자원관리 과정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외적통제성이 강한 주부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내적통제성이 강한 주부가 외적통제성이 강한 주부보다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를 더 적게 지각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4.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스트레스의 누적을 막는 한편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McCubbin 등(1980)은 내적전략과 외적전략으로, Bell(1977)은 장기적응방법과 단기적응방법으로, 김정희(1987)는 적극적 대처방법과 소극적 대처방법으로, 임동명(1991)은 문제지향적 대처방법, 충동·의존적 대처방법, 회피적 대처방법으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Anderson(1976)은 문제지향적 대처방법은 스트레스 지각 수준과 역U 관계가, 정서지향적 대처방법은 스트레스 지각 수준과 정적상관 관계가 있어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는 문제지향적 대처방법을 포기하고 정서지향적 대처방법을 사용한다고 보고한다. 강인(1989) 역시 주부는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소극적 태도와 친구, 친척, 이웃의 지원을 많이 사용한다고 말한다.

이광주(1988)는 남편의 사고, 질병과 같은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주부들이 주로 낙관적인 태도를 갖거

나 삼자의 도움을 구하는 소극적 대처방법을, 남편의 퇴직과 같은 스트레스에는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며, 경제적 곤란과 같은 스트레스에는 적극적 대처방법과 회피적 대처방법을,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에는 적극적 대처방법, 소극적 대처방법, 회피적 대처방법을 다양하게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하나의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 한 개인이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병옥(1985), 전세경(1988)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단기적인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며 차승희(1991)는 스트레스가 높은 주부들이 스트레스가 낮은 주부들에 비해 갈등이나 내적인 자기비하, 회피의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접근이나 자아중심적 접근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방법은 스트레스가 낮은 주부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또 최덕경(1992)은 사고중심형과 행동중심형의 대처방법은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와 부적상관관계가, 회피형의 대처방법은 정적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구시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 중에서 층화표집한 565명의 주부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1996년 9월 대구시내의 각 구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분포 상황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각 구별 아파트 거주 세대의 비율대로 7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조사는 1996년 9월 30일부터 10월 5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회수된 자료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부적합한 자료를 제외한 565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565)

변 인	내 용	인 원 (%)	변 인	내 용	인 원 (%)
주 부 연 령	30세 이하	24 ( 4.3%)	남 편 연 령	30세 이하	9 ( 1.6%)
	31 - 35세	49 ( 8.7%)		31 - 35세	31 ( 5.5%)
	36 - 40세	238(42.1%)		36 - 40세	105(18.6%)
	41 - 45세	189(33.4%)		41 - 45세	235(41.6%)
	46세 이상	65 (11.5%)		46세 이상	185(32.7%)
주 부 교 육	중 학 교 졸	93 (16.5%)	남 편 교 육	중 학 교 졸	35 ( 6.2%)
	고등학교 졸	252(44.6%)		고등학교 졸	199(35.2%)
	전문대학 졸	45 ( 8.1%)		전문대학 졸	35 ( 6.2%)
	대 학 교 졸	144(25.6%)		대 학 교 졸	228(40.4%)
	대학원졸이상	29 ( 5.2%)		대학원졸이상	68 (12.0%)
주 부 취 업 유 무	유	214(37.9%)	남 편 직 업	전 문 직	105(18.6%)
	무	351(62.1%)		관 리 직	139(24.6%)
월 소 득	100만원 이하	23 ( 4.1%)		사 무 직	138(24.4%)
	101-200 만원	187(33.1%)		관 매 직	89 (15.8%)
	201-300 만원	199(35.2%)		서 어 비 스 직	42 ( 7.4%)
	301-400 만원	86 (15.2%)		단 순 노 무 직	20 ( 3.5%)
	401만원 이상	70 (12.4%)		기 타 미 트 무 직	32 ( 5.7%)
아 파 트 크 기	20평 이하	74 (13.1%)		자 녀 수	1명 이하
	21 - 30평	191(33.8%)	2 명		357(63.2%)
	31 - 40평	195(34.5%)	3 명		99 (17.8%)
	41평 이상	105(18.6%)	4명 이상		39 ( 6.9%)

2. 측정도구

1) 객관적 가정자원

객관적 가정자원 척도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와 남편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족의 월평균 소득, 자녀수, 거주하는 아파트 크기의 9개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개방기입식과 선택기입식의 질문지로 측정하였다.

2)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척도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척도는 Rowland 등(1985), 조영희(1991)의 척도를 기초로 2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한 후 28문항을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식 5품등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6이다.

3) 통제소재 척도

통제소재 척도는 Rotter(1957), Sumarwan과 Hira (1993), 윤소영(1992)의 척도를 기초로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2개의 요인(내적통제성, 외적통제성)으로 분류되었고 부하량이 낮거나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된 문항이 없었으므로 12문항 모두를 통제소재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품등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으며 외적통제성 요인

으로 분류된 문항(6문항)은 역산을 함으로써 내적통계성 문항(6문항)과 동일한 방향성을 갖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61이다.

#### 4) 스트레스 대처방법 척도

스트레스 대처방법 척도는 임동명(1991), 최덕경(1992), 전세경(1988)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품등 척도로 '매우 많이 사용한다'에 5점부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에 1점을 주었다. 본 척도를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되거나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4문항을 제외시키고 17문항을 스트레스 대처방법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을 검토한 뒤 요인 1을 적극적 대처방법(7문항), 요인 2를 소극적 대처방법(4문항), 요인 3을 회피적 대처방법(6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각 요인별로 .81, .65, .63이다.

#### 5)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척도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척도는 최덕경(1992), 지금수(1992), 서리나(1994)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3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품등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본 척도의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된 1문항을 제외시키고 29문항을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을 검토한 후 요인 1을 인적자원관리 스트레스(11문항), 요인 2를 물적자원관리 스트레스(11문항), 요인 3을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7문항)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각 요인별로 .86, .83, .82이다.

### 3.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요인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 Scheffé의 사후검증법,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객관적 가정자원 변인에 포함되는 주부의 교육수준과 취업유무, 남편의 교육수준과 직업은 중다회귀분석 과정에서 가변수화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객관적 가정자원에 따른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객관적 가정자원에 따른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인적, 물적, 환경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분산분석,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는 남편과 주부의 연령, 남편과 주부의 교육, 주부의 취업유무, 월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41-45세인 주부들과 자신이 41-45세인 주부들이 다른 연령 집단의 주부들보다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41-45세 주부들의 인적,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다른 연령의 주부들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다. 남편이 41-45세인 주부들과 자신의 연령이 41-45세에 속하는 주부들은 대체로 소득의 증가가 가계지출의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임정빈 등, 1994) 자녀의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생활주기단계에 속하는 가족이므로 다른 연령 집단의 주부보다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들은 자녀의 교육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움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가족은 스트레스사건, 규범적 전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수용할만한 것으로 지각하고, 이러한 요구들에 부응하여 자신들이 가정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자원이나 상황, 생활만족도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고한 최연실(1996)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표 2〉 객관적 가정자원에 따른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인적자원관리 스트레스		물적자원관리 스트레스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	
		M	SD	M	SD	M	SD	M	SD
객관적 가정자원(N)	20평 이하( 74)	2.54	.59	2.33	.64	2.63	.76	2.77	.87
	21 - 30평(191)	2.70	.58	2.55	.69	2.71	.72	2.92	.89
	31 - 40평(195)	2.65	.62	2.53	.74	2.66	.71	2.84	.78
	41평 이상(105)	2.67	.70	2.61	.81	2.65	.80	2.81	.87
	F 값	1.1767		2.3447		.3392		.7828	
자녀수	없음 ( 6)	2.98	.65	3.03	.55	3.00	.79	2.88	.88
	1명 ( 64)	2.66	.57	2.52	.71	2.58	.67	3.00	.82
	2명 (357)	2.64	.61	2.50	.75	2.64	.70	2.87	.83
	3명 ( 99)	2.63	.66	2.55	.69	2.70	.82	2.68	.85
	4명 이상( 39)	2.78	.62	2.60	.71	2.96	.84	2.86	.95
F 값	.9516		.9488		2.2049		1.5764		
남편연령	30대 이하( 9)	2.85	.55	2.87	.24	2.72	.71	3.02	.71
	31 - 35세( 31)	2.67	.47	2.63	.71	2.50	.55	3.01	.77
	36 - 40세(105)	2.77 b	.61	2.67 a	.76	2.74	.72	3.00	.83
	41 - 45세(235)	2.56 a	.62	2.40 b	.71	2.60	.71	2.77	.88
	46세 이상(185)	2.70 b	.62	2.57	.71	2.76	.79	2.84	.81
F 값	2.8698*		3.5453**		1.8822		1.6993		
주부연령	30대 이하( 24)	2.63	.44	2.66	.67	2.48	.56	2.81	.71
	31 - 35세( 49)	2.86 b	.56	2.79 a	.71	2.67	.69	3.25 a	.84
	36 - 40세(238)	2.65	.62	2.50	.72	2.69	.71	2.84 b	.87
	41 - 45세(189)	2.57 a	.63	2.41 b	.72	2.64	.78	2.74 b	.81
	46세 이상( 65)	2.79 b	.66	2.71	.73	2.76	.78	2.95	.82
F 값	3.0193*		4.1156**		.7698		3.9137**		
남편교육	중학교졸( 35)	2.77	.47	2.61	.61	2.93	.57	2.82	.84
	고등학교졸(199)	2.58 b	.58	2.39 a	.65	2.66	.73	2.78	.85
	전문대학졸( 35)	2.38 b	.58	2.08 c	.54	2.50	.75	2.74	.82
	대학교졸(228)	2.67	.64	2.57 a	.78	2.65	.76	2.88	.84
	대학원졸이상(68)	2.85 a	.63	2.88 b	.72	2.71	.70	3.04	.88
F 값	4.5319**		9.2440***		1.6077		1.3697		
주부교육	중학교졸( 93)	2.69	.54	2.48	.61	2.86 b	.72	2.79 b	.84
	고등학교졸(252)	2.57 a	.61	2.40 a	.68	2.62	.74	2.80 b	.84
	전문대학졸( 45)	2.72	.56	2.64	.74	2.74	.64	2.85	.79
	대학교졸(144)	2.69	.66	2.66 b	.82	2.60 a	.74	2.87 b	.86
	대학원졸이상(29)	3.04 b	.68	2.95 b	.76	2.86 b	.75	3.47 a	.76
F 값	4.4466**		6.2163***		2.8316*		4.2568**		
남편직업	전문직(105)	2.74	.62	2.75 a	.77	2.63	.71	2.88	.87
	관리직(139)	2.66	.66	2.56	.80	2.64	.75	2.85	.79
	사무직(138)	2.57	.62	2.42 b	.69	2.65	.72	2.76	.86
	판매직( 89)	2.65	.51	2.47 b	.60	2.66	.64	2.94	.81
	서비스직( 42)	2.53	.68	2.29 b	.70	2.62	.81	2.83	.98
	단순노무직( 20)	2.88	.55	2.60	.69	3.15	.75	2.97	.85
	기타( 22)	2.60	.59	2.38	.65	2.79	.88	2.71	.85
	무직( 10)	2.98	.66	2.78	.71	2.94	.86	3.37	.75
	F 값	1.5766		2.9789**		1.6626		1.0948	
주취업유무	유 (214)	2.73	.65	2.61	.79	2.69	.71	3.00	.89
	무 (351)	2.61	.59	2.47	.68	2.66	.75	2.76	.80
	t 값	1.160*		5.93*		.156		2.448**	
월소득	100만원 이하(23)	2.85	.59	2.54	.57	3.06 a	.74	3.10	1.07
	101-200만원(187)	2.55 a	.57	2.39 a	.66	2.62	.71	2.73 a	.82
	201-300만원(199)	2.73 b	.63	2.61 b	.76	2.74	.74	2.90 b	.81
	301-400만원( 86)	2.72 b	.62	2.60 b	.74	2.65	.72	3.05 b	.82
	401만원 이상(70)	2.57	.69	2.55	.83	2.49 b	.74	2.72 a	.90
F 값	3.1118*		2.5760*		3.2789*		3.1996*		

\*p< .05 \*\*p< .01 \*\*\*p< .001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원에 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위영역에서는 남편의 연령이 높은 주부일수록, 자신의 연령이 높은 주부일수록 인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더 낮았는데 이는 50세 이상의 주부가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최덕경(1992)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르다. 이러한 결과는 최덕경(1992)의 연구가 인적자원 중에서 지식·기술관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주부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가정기기 등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인적자원관리에서의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반면 본 연구는 시간, 건강, 지식·기술, 대인적자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남편이나 자신의 연령이 높은 주부일수록 지식·기술관리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경험에서 축적된 시간자원이나 대인적자원관리에서의 잇점과 서로 상쇄되어 인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남편의 교육수준이 대학원졸 이상인 주부와 자신의 교육수준이 대학원졸 이상인 주부들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가 가장 높으며 남편이 고등학교졸인 주부와 자신이 고등학교졸인 주부의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다. 하위영역에서는 대학원졸 이상인 주부들이 인적, 물적,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일수록 가정자원관리의 중요성과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이 지각하고 있고, 효율적인 가정자원관리를 위해 더 심사숙고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하위영역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중학교졸인 주부와 대학원졸 이상인 주부들이 대학교졸 주부보다 물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물적자원 관리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인적자원이나 환경적자원에 비해 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관련 지식과 정보없이 물적자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교육수준이 낮은 중학교졸 주부들은 변화하는 정보와 지식을 충

분히 수용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대학원졸 이상의 주부들은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도 이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물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높다고 생각된다.

아내의 취업유무별로 보면 취업주부들이 전업주부보다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가 더 높는데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가 높다는 Broth(1977), 김경아(1990), 이정우 등(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가정자원관리 책임이 주부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직업역할과 가정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취업주부가 시간과 에너지와 같은 인적자원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과 에너지의 여유가 있는 전업주부보다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가 높다고 여겨진다.

하위영역에 있어서는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인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물적자원관리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인적, 물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높다고 한 이정우 등(1994)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것이다. 이는 전업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자원이 부족해 취업주부들이 물적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사노동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화하고(윤소영, 1992) 가정기기를 구입하여 시간을 절약하는 등 다양한 관리대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적자원관리에 있어서는 전업주부와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사회화하기가 쉽지 않고 다른 대안으로의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전업주부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는 잘 짜여진 스케줄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자신의 시간과 노력분배에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Holmstorm(1973)의 연구결과로도 다소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높았는데 이는 취업주부들이 자녀 탁아문제 등과 같이 지역사회에 도움을 좀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사회와 관련된

환경적자원을 가정자원으로 인지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시간자원 부족이나 기회의 제약 등으로 인해 환경적자원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월소득별로 보면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주부들이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하위영역인 인적, 물적,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다른 주부들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많을수록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가 낮다는 최덕경(199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월소득이 101-200만원, 401만원 이상인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가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낮게 나타나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하위영역에 있어서는 월소득이 101-200만원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인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낮고 월소득이 201만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적자원관리 스트레스는 월소득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더 높았는데 이는 수입이 낮을수록 이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정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월소득에 따른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는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 다른 연구와 비교·분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어려운 점은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주부의 스트레스 수준과 가정의 객관적인 가정자원 평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어 오던 월소득 수준만으로 그 가정의 경제수준을 평가한다는 것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을 평가할 때는 가족의 상황을 고려한 가정자원적정도도와 같은 다양한 측면들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Gove와 Greenken(1976), 장병옥(1985), 이광주(1989)는 자녀는 궁극적으로 주부가 해야 하는 가사노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녀수가 많을수록 주부의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수에 따라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는 그 연령에 따

라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인적자원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가사노동의 양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수와 함께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로 어떤 단정적인 결론이나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

## 2.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가정자원, 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상대적 영향력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인적, 물적, 환경적) 각각에 대한 객관적 가정자원, 가정자원적정도지각, 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방법(적극적, 소극적, 회피적)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 가정자원, 가정자원적정도지각, 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방법(적극적, 소극적, 회피적)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 $\beta = -.357, p < .001$ ), 소극적 대처방법( $\beta = .210, p < .001$ ), 아파트 크기( $\beta = .137, p < .01$ )의 순서로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인 주부의 인적자원관리 스트레스에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 $\beta = -.312, p < .001$ ), 소극적 대처방법( $\beta = .210, p < .001$ ), 아파트 크기( $\beta = .149, p < .01$ ), 남편 직업( $\beta = .132, p < .01$ ), 남편교육( $\beta = .097, p < .05$ )의 순서로, 물적자원관리 스트레스에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 $\beta = -.307, p < .001$ ), 소극적 대처방법( $\beta = .183, p < .001$ ), 아파트 크기( $\beta = .104, p < .05$ )의 순서로, 그리고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에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 $\beta = -.240, p < .001$ ), 소극적 대처방법( $\beta = .098, p < .05$ ), 주부의 취업유무( $\beta = .088, p < .05$ )의 순서로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는 전체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뿐 아니라 인적, 물적, 환경적자원관리의 각 하위영역에서도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이 주부의 가정경영상의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김경아

〈표 3〉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종속변인 독립변인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인적자원관리 스트레스		물적자원관리 스트레스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아파트크기	0.091	0.137**	0.117	0.149**	0.082	0.104*	0.058	0.064
자녀수	0.011	0.013	0.024	0.024	0.052	0.054	-0.071	-0.063
남편연령	-0.004	-0.006	-0.027	-0.035	0.034	0.043	-0.019	-0.021
주부연령	-0.016	-0.025	-0.021	-0.028	-0.022	-0.028	0.001	0.002
남편교육	0.127	0.060	0.241	0.097*	0.081	0.032	-0.003	-0.003
주부교육	0.104	0.047	-0.055	-0.030	0.081	0.044	-0.025	-0.012
남편직업	0.101	0.071	0.221	0.132**	0.020	0.012	0.012	0.006
주부취업유무	0.026	0.023	-0.002	-0.002	-0.016	-0.012	0.136	0.088*
월소득	0.030	0.052	0.058	0.085	-0.012	-0.017	0.041	0.052
가정자원적정도지각	-0.493	-0.357***	-0.508	-0.312***	-0.503	-0.307***	-0.451	-0.240***
통제소재	-0.132	-0.090	-0.131	-0.075	-0.154	-0.088	-0.103	-0.051
적극적 대처방법	0.007	0.008	0.029	0.027	-0.011	-0.010	-0.004	-0.004
소극적 대처방법	0.194	0.210***	0.230	0.210***	-0.201	0.183***	0.124	0.098*
회피적 대처방법	-0.010	-0.010	0.004	0.004	-0.018	-0.015	-0.024	-0.017
Constant	3.863		3.504		3.942		4.365	
R <sup>2</sup>	0.218		0.210		0.176		0.085	
F 값	10.901***		10.124***		8.388***		4.127***	

\*p &lt; .05 \*\*p &lt; .01 \*\*\*p &lt; .001

(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가 낮다는 장윤옥 등(1997)의 연구결과,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자원 각 영역에서의 관리능력이 향상된다는 이명숙(1987), 서리나(1994)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가정자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정도가 객관적인 가정자원 수준보다 가정자원관리 수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 소극적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주부일수록 각 하위영역 뿐 아니라 전체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이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적극적 태도의 대처방법을 적게 사용하고 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는 소극적인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강인(1990), 차승희(1991)의 연구결과와 다소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 나름대로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극적 대처방법을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스트레스가 감소되지 않고 그대로 누적되기 때문에 소극적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 크기 역시 전체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와 인적, 물적자원관리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하는 아파트의 크기는 주부가 관리해야 하는 영역과 다양한 설비 등을 모두 반영하는 변인으로 아파트의 크기에 따라 주부의 가사노동량과 주부의 관리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아파트 크기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환경적자원이 각 가정이 공유하는 자원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이용·유지·관리는 개인가정만의 책임이 아니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인적자원관리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남편의 교육수준과 직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주부의 인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분석할 다른 연구들이 거의 없어 구체적인 분석·설명을 하기는 어려우나 현대의 가정은 가족내 상호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과거에 비해 부부관계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어 주부들이 물질, 환경적자원관리 보다 인적자원관리에 더욱 심사숙고하고 있고 따라서 인적자원관리의 주대상이 되는 남편이 인적자원관리 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는 주부들이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요해졌으나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가족내에서의 친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갈등을 겪고 있다는 최덕경(1992)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주부의 취업유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주부들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환경적자원의 이용을 더욱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적자원의 중요성을 지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얻은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가정자원에 따라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인적, 물질, 환경적)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편이 41-45세인 주부들과 자신이 41-45세인 주부들의 전체 가정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다른 주부들에 비해 유의하게 더 낮았고, 31-35세 주부들은 다른 주부들에 비해 전체 가정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또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일수록, 월소득이 낮은 주부일수록 전체 가정자원관리,

인적, 물질,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남편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주부일수록 인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높았다. 한편 취업주부들은 전업주부보다 전체 가정자원관리, 인적,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둘째, 주부의 전체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소극적 대처방법, 거주하는 아파트 크기 순서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인 주부의 인적자원관리 스트레스에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소극적 대처방법, 아파트 크기, 남편의 직업, 남편의 교육수준 순서로, 물질자원관리 스트레스에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소극적 대처방법, 아파트 크기 순서로, 그리고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에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소극적 대처방법, 그리고 주부의 취업유무 순서로 다른 변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과 소극적 대처방법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부가 객관적 가정자원에 대한 자신의 지각도 자원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수준을 높이고, 스트레스나 문제상황을 자신이 통제·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여 소극적 대처방법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면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통해 몇가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가정자원의 상대적영향력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이 실제로 객관적 가정자원의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면 각각의 객관적인 가정자원 수준을 통합하여 하나의 변인으로 나타낼 수 있는 평가방법이 미비하여 나타난 결과인지를 본 연구에서는 규명하기 어려웠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문제점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가정자원적정도지각과 객관적 가정자원의 영향력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가 더욱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 남편과 관련된 객관적 가정자원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주부와 관련된 변인만을 선정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핵가족화로 인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부부관계와 가족구성원간의 가사노동분담 등을 고려해 볼 때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주부에 관한 다른 연구영역에서도 남편 관련 변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1) 강 인(1989). 중년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2) 고은숙(1992). 취업주부의 스트레스, 내외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3) 김경아(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경영상의 스트레스 수준 및 관련변인 고찰.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4) 남유리(1989).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연구 비교.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5) 윤소영(1992).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인 및 통제소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6) 이광주(1988).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응방법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 7) 이정우·황경혜·정진희(1994).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4), 1-15.
- 8) 장병옥(1985).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9) 차승희(1991). 가족스트레스와 부부간의 대처전략 및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10) 최덕경(1992). 가정관리행동시 주부의 스트레스와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11) 최연실(1996). 청소년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12) 현은민(1994). Factors in determining resources adequacy perception of rural couples. *대한가정학회지* 32(1), 19-30.
- 13) Anderson, C.R.(1976). Coping behaviors as intervening mechanism in the converted-U stress-performance relationship,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1/1, 30-34.
- 14) Casta, P. T. & McCrae, R. R.(1983). Contribution of personlity research to an understanding of stress and aging. In McCubbin, M. B., Sussman & Patterson, J. M.(eds.). *Social Stress and Family*. New York : The Haworth Press, 157-174.
- 15) Clark-Nicolas, P. & Gray-Little, P.(1991). Effects of economic resource on marital quality in black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645-655.
- 16) Gore, S. & Margione, T. W.(1983). Social roles, sex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 Additive and interactive models of sex diggerenc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300-312.
- 17) Gove, W. R. & Greenken, M. R.(1976). The effect of children and employment on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en, *Social Forces*, 56, 66-79.
- 18) Heck, R. K. Z.(1983). A preliminary test of a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117-135.
- 19) Matthews, K. A.(1982).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type A behavior pattern. *Psychological Bulletin* 91, 292-323.
- 20) Strickland, B. R.(1978). Internal-external expectancies and health related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192-1211.